

社會事業教育에 있어서의 對人關係論의 重要性

趙 成 慶

〈嶽田大 社會事業學科 教授〉

目 次

- | | |
|---------------|-------------|
| 1. 問題의 提起 | 4. 意思疏通의 技術 |
| 2. 對人關係의 重要性 | 5. 結 論 |
| 3. 對人關係의 發達過程 | |

1. 問題 提起

社會事業은 실천하는 過程에서 끊임없이 人間과의 접촉이 必要하다. 도움을 必要로 하는 個人, 集團, 地域社會 住民을 여러가지 欲求 및 潛在能力을 지닌 전체로서의 人間으로 보자자 獨特性을 가진 人間으로 理解하고 받아들이며 때로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주위 環境에 여러 사람들과도 機能的 關係를 유지하게 된다. 즉 社會事業에서는 社會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個人 또는 社會環境에서의 變化를 人間關係에서 조정하여 機能的으로 촉진시키는 活動이 계속 進行된다 하겠다.

그리고 社會事業教育에 있어서는 人道主義 價値觀 특히 人間의 相互依存성과 도움이 필요한 立場에 있다 하더라도 個人의 근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哲學¹⁾을 바탕으로 人間에 대한 여러 측면에 대한 知識—生物學, 心理學, 社會, 經濟, 文化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게 되며 클라이언트를 變化시키기 위한 方法으로 個人, 集團, 組織의 力動性에 관한 個別的 또는 統合的 理論과 技術을, 또 環境을 알고 또 變化시키기 위해서는 社會福祉制度 및 調查 研究, 計劃, 政策, 行政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一般的으로 社會事業學徒들은 對人關係知識을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또는 행정 과목에서 클라이언트를 變化시키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배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의 關係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事業 全般에 걸쳐 必要한 人間과의 접촉 또 社會事業學徒들이 大學教育의 일반적 目的²⁾에 입각한 성숙한 社會人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목에서 단 편적으로 배우는 對人關係知識만으로는 限界가 있다고 보며, 특수관계를 綜合하며 또 학생

1) Allen Pincus, Anne Minahan, 文仁淑의 3명 共譯, "社會事業方法論." 共峇社, 1976. 9.

2) 南世鎭, "韓國社會事業 教科課程 開發을 위한 研究," 韓國社會福祉研究所, 1978. 11, p. 23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된다.

對人關係論은 다양한 學科에서 다양한 題目으로 다양한 學者에 의하여 가르쳐진다. 人間關係, 集團過程, 小集團論, 集團相談 등의 題目으로 經營學, 醫學, 神學, 社會事業學, 教育學과 같은 분야에서 교육되기도 하며 교과내용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教授의 專攻分野에 따라 理論的 준거들과 접근이 달라지기도 한다. 教育의 場도 다양하여 大學에서 教科目으로 가르쳐지기도 하며, 상담실, 직장 현업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이룩되기도 하며 美國에서는 이 교육을 위한 특수 기관이 있기도 하다. Esalen Institution와 National Training Laboratory가 그 대표적 기관들이라 하겠다.

社會事業學徒들을 위한 對人關係論을 택하거나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教育하는 立場에서 社會事業과 관련되면서도 一般性이 있는 내용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여기에 社會心理的 理論을 바탕으로 社會發展的 側面을 내용으로 한 對人關係의 重要性和 理論, 技術을 한 모델로서 묶어 提示하고자 한다.

2. 對人關係의 重要性

우리는 태어나서 숨쉬는 순간부터 다른 人間을 必要로 하며, 人間과의 접촉을 통하여 行動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며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실 人間이 人間답게 되는 것 자체도 다른 人間과의 접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人間으로부터 고립되어 자라난 어린이는 주위 環境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人間이 反應하는 것과 같이 反應하지 못함이 發見되었고, 人間과 떨어져 늑대나 山羊과 같이 자라난 아이는 人間보다는 動物과 같은 存在가 됨을 알고 있다.³⁾

이렇게 人間과의 접촉이 우리로 하여금 人間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種類의 人間으로 되느냐에도 重要的 原因이 된다. 文化人類學者들에 의하여 南太平洋에 있는 한 작은 섬의 住民들은 서로 協助하며 平和스럽게 사는데, 그 옆에 自然環境이 비슷한 다른 섬의 住民들은 서로 競爭하고 好戰的인 人間으로 成長하는 것이 發見되었다. 即 우리가 어떤 文化風土 속에서 生活하느냐가 우리가 하는 行動에 決定的 要因이 됨을 暗示해 준다 하겠다.

人間의 삶과 보람도 人間關係에 起因한다. 참기 어려운 困境에 對해있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남는 理由는 죽으면 슬퍼하고 살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즉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喜怒哀樂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價値가 없는 存在가 人間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現代人들은 競爭的 物質文明 속에서 人間을 人間으로

3) Terry O'banion, April O'connell, "The Shared Journey," Prentice-Hall, New Jersey, 1970, p. 12

대하기 보다는 자기가 追求하는 어떤 일을 進行하기 위한 手段의 對象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政權을 잡고, 敎育을 받고, 돈을 벌고, 必要한 물건을 購入하고, 衣食住를 解決하고, 危險을 피하고, 肉體的 快樂을 즐기기 위한 手段으로 人間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이 다른 사람들을 人間으로 대하지 않는 한 人間은 孤獨속에서 살게되며, 追求하는 일 自體를 위해서 우리가 存在하는 삶을 살게 되어 더 많은 것을 追求하다가 나중에는 삶의 方向을 잃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即, 아름답고 보람있는 人間關係는 우리가 사는 보람의 目標로도 價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바람직한 人間關係를 통해서만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成就한 일만이 우리에게 滿足感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人間關係를 가질 수 있는 能力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心理分析學者 「에릭·프롬」(Erich Fromm)에 依하면 가장 바람직한 人間關係는 사랑에 의하여 맺어져야 하며, 사랑이란 藝術과 같아서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理論을 알고 實踐을 통하여 技術을 익혀야 하며, 삶을 이것에 投資해야 하며, 겸손하고, 꾸준하고, 솔직한 자세가 必要하다 하였다.⁴⁾

行動科學側面에서 보는 人間關係는 이것을 통하여 人間の 心理가 成長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人間關係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생겨야 한다.

- (1)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며,
- (2) 他人을 동정하고 理解할 수 있게 되며
- (3) 나와 他人이 存在하는 環境을 올바르게 認識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條件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交際를 必要로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理解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形견이나 行動을 觀察하고 나의 것과 比較해야 하며, 내가 사는 環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關係를 고려한 다음에야 概念이 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 必然性은 대개 集團안에서 생긴다. 이 集團이라 하는 것은 職場이나 敎育을 위한 公式的인 組織集團을 뜻하기도 하며, 各者가 個人의 目的을 가지고 만드는 非公式的인 集團도 포함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屬한 集團에서 바람직한 對人關係를 維持하며 그 關係를 통하여 자기의 潛在能力을 發揮하여 成就感을 갖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과 同時에 그 集團 자체도 成長하며 目的을 達成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와 反面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潛在能力도 많고 그 集團이 가지고 있는 物理的 資源도 豊富하지만 원만한 對人關係를 維持하지 못하며 個人의 潛在能力도 發揮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이 滿足스럽지도 못하며, 그 集團 自體의 事業도 成功하지 못하고, 중

4)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Bantam Books, New York, 1950. 9

여기서 우리는 對人關係가 바람직하게 形成되려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關心을 갖게 되고 여기에 關聯된 技術을 알고 배울 必要性이 생기는 것이다.

3. 對人關係의 發達過程

個人이 탄생하여 죽을 때까지의 成長過程도 어떤 段階別로 區別할 수 있는 것 같이 對人關係나 集團을 對象으로 일하는 科學者들도 集團이 成長하는 過程이 어떤 段階를 거쳐 發達되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이러한 理論은 經驗을 통해 觀察한 수많은 集團活動에서의 共通點을 찾고 이것을 整理함으로써 수립되는 것이다.⁵⁾

(1)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과 처음 사귄 때에는 머뭇거리는 現象이 생기며, 그 다음은 情報를 交換하기 始作한다. 그 內容을 分析하면,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알려고 하며 그 다음에는 本人에 대해서도 알리려고 한다. 이러한 情報交換은 주로 共通點을 發見하려고 하며, 또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찾아서 당사자들간의 어떤 形態의 體制를 形成하기 爲한 意圖인 것이다.

(2) 發見한 共通點이 어느 정도의 安定感을 가져다 준다면 關係를 維持하며 共同生活을 始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各者가 좀 더 內面的인 情報를 交換하려고 한다. 앞에서는 外面的인 自我에 대한 것이지만 이 段階에서는 主觀的인 興味나 主張을 見解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모든 面에서 똑같은 人間은 存在하지도 않으며, 또 누구나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원하지도 않으며, 자기나름대로의 特性을 보이려는 欲求가 있는 것이다. 卽, 當面한 課題에서 立場의 見解差異가 노출되게 되며 葛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3) 對人關係의 發達過程에서 당사자들간의 見解差가 생기는 것은 當然한 일이며, 여기에서 생기는 葛藤을 해소하려는 努力은 必然的이라 하겠다. 葛藤을 해소하는 方法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상대방을 제거한다 : 反對者를 제거하면 간단하다.
- ② 상대방을 제압한다 : 힘을 가지고 反對者를 制壓하여 부종하게 한다.
- ③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 : 자기와 意見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反對者와 對應하기도 하며, 反對편에 들어가지도 한다.
- ④ 상대방과 協商한다 : 서로가 양보하여 葛藤을 處理한다.
- ⑤ 서로 統合한다 : 이 方法은 힘이 들고 혼히 쓰여지지 않는다. 統合에서는 各者의 位置을 維持하면서 서로의 特性을 混合하여 새로운 全體的 案을 창조한다. 各者의 立場과 案을 充分히 檢討하고, 그 중 당사자들이 가장 妥當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擇했다면 새

5) Carl R. Rogers, "The Process of The Basic Encounter Group", Challenge of Humanistic Psychology, McGraw-Hill, New York, 1967. p. 9.

있겠다.

相對를 제거한 경우에는 對人關係가 끝나기 때문에 말할 必要조차 없었지만, 일단 葛藤이 해소 됐더라도 어떤 方法에 의한 것이냐가 다음에 있을 發展에 큰 影響을 준다 하겠다. ②나 ③의 方法으로 解決되었다면 한 쪽의 獨特性은 完全히 없어진 것이며 ④의 경우에는 서로가 양보했기 때문에 各자의 獨特性은 半減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卽, 對人關係를 維持하기 위하여 自己를 完全히 또는 절반은 잃어버리는 結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⑤에서의 같이 葛藤을 해소하는 方法에서 자기 자신의 立場뿐만 아니라 相對方의 立場도 尊重하면서 어떤 結論에 到達할 수 있을 때에는 그 結果에 의하여 推進되는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이며, 모두가 자신을 갖고 責任을 느끼며 潛在能力을 最大로 發揮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段階에서는 程度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獨特性을 再認識하게 되었다.

(4) 자기의 意見を 尊重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意見を 尊重하는 사람은 신뢰받게 된다. 그러나 남을 尊重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며 責任을 회피하거나 나를 尊重하기 위하여 相對方을 억압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5) 對方을 신뢰할 수 있을때 사람들의 行動은 自由롭고 솔직하게 表現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던 것을 꺼내놓을 수가 있다. 또한 슬픔과 기쁨을 相對方과 같이 나눌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自由롭게 表現한다. 그리고 자기의 見解를 自由롭게 提示하며, 처벌받기 바라는 最少한 尊重되어 지지받지 않으면 修正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6) 신뢰하며 솔직한 表現이 可能한 人間關係에서 너와 나의 一致感을 經驗하게 된다. 이것은 家庭, 職場, 社會, 國家에 屬한 “우리”가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우리”의 一體感인이다. 한 人間으로서 긍지를 갖고 소신껏 삶을 영위하려는 자신(매슬러가 말하는 自我實現)은 이런 狀況에서 생기며 이러한 人間關係 過程을 거친 사람은 한 段階 높은 水準에서 다른 關係를 進行시킬 準備가 되어 있는 것이다. 家庭에서 이런 人間關係를 維持하는 사람을 다른 새로운 次元에서 職場生活에 임하게 되며, 職場에서 人間關係가 滿足한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次元의 關係를 갖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4. 意思疏通의 技術

지금에 와서 있을 수 있는 質問은 “무엇이 對人關係 過程을 進行시키는가?”란 것이다. 이러한 質問은 集團力動性を 研究하는 學者들에 의하여 答하여져 왔다. 卽, 集團機能은 대개 억제력, 추진력, 意思疏通 등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의사소통 기능인 것이다.

모든 高等動物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意思疏通 方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人間이 오늘날

에 많은 學者들이 同意한다. 人間文化의 가장 實한 유산이 言語라는 말이 되겠다. 그러나 現代人들은 意思疏通方法으로 言語에 너무 依存하는 데 問題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問題性은 다음과 같다.

첫째, 言語는 주로 知的作用으로 表現되고 또 받아 들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社會生活은 組織的이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利害상관에 얽매어 있어 현재 尙장 사소한 일에 솔직한 表現을 했다가는 뒤에 莫大한 손해 내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知的作用인 言語表現이 항상 眞實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表現하는 것 자체도 勿論 可能性이 있다.

둘째, 우리 人間의 身體構造는 몇개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보내는 信號를 받아들이고 있다. 五感覺 卽, 視覺, 聽覺, 후각, 味覺, 觸覺(어떤 사람들은 第六覺도 認定한다.) 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言語만 使用할 경우 극히 一部の 感覺機關만 意思疏通에 利用될다 하겠다. 그러므로 對人關係를 爲한 效果的 意思疏通을 위해서는 本人의 感覺기관을 總動員하여 相對方이 보내는 意識的 信號뿐만 아니라 無意識的 信號도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人間은 계속 자기의 느낌 상태를 알리는 信號를 外部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느낌을 意思疏通에서 重要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主張은 이것 자체가 知的作用으로 表現될 수 없기 때문이다. (勿論, 特殊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可能하지만) 卽, 言語의 內容은 作될 수 있지만 느낌만은 솔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느낌을 意思疏通에 效果的으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相對方 느낌에 關心을 두고 오랜 觀察과 適時性を 重要視하며 言語와 其他의 適當한 混用이 必要한 것이다. 效果的인 意思疏通을 위한 技術의 몇가지 例를 든다.

첫째 : 의역하는 能力이라 하겠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理解하였나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나의 말로서 表示해 보는 方法이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해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바꾸어 의역해서 본래 말한 것 보다 더 細密한 內容으로 反問하는 것이다. 例를 들어 職場에서 두 同僚가 주고 받는 말 가운데 “차과장은 부장이 되기에는 適當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金氏의 말에 대해서 李氏가 “자네 생각엔 차과장이 그 자리에 適當한 人物이 못된단 말인가?”라고 反問했다면 이것은 서투른 의역이라 하겠다. 이 反問은 아직도 너무나 一般的인 內容이기 때문에 適當하지 않다는 말을 明確히 說明해 주지 못한다. 마치 理解한 것 같은 인상만 줄 뿐이다. 좀 더 正確한 의역이 타면 “자네 생각엔 차과장이 知識이 不足하단 말인가?” 정도의 細分化된 質問인 것이다, 그렇다는 同意가 나오면지 설사 “그것이 아니라 차과장은 意思決定에 있어서 他人의 意見은 참작하지 않고, 너무나 獨裁的 자세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일세.”라는 答이 나오더라도 왜 適當하지 않은가 하는 理由는 밝혀진 것이다, 이런 式의 對話는 짧은 時間에 깊이 있는 卽, 理由가 밝혀지며 앞으로 進展되기 때문에 話題가 尙상 새롭게 進展된다. 이와 反對로 선

話를 이끌어가는 경우엔 서로간의 意思疏通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두사람 사이의 對人關係는 進展되지 않게 된다 하겠다.

둘째 : 知覺檢討라는 것이다. 나의 意思를 相對方에게 傳達하기 위해서는 相對方의 느낌을 重要視 하지 않을 수 없다. 相對方이 現在 가지고 있는 느낌은 나와의 關係에서 가지는 反應일 수도 있고 나 以外の 다른 原因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相對方의 느낌이 어떤가에 따라 나의 意思가 정확히 받아들여질 與否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相對方의 느낌을 觀察한 것만으로는 單純한 추리에 지나지 않고 完全히 알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만일 박과장이 “내 딸이 자네에게 그렇게도 지루한가?” 또는 “어째서 자네는 그렇게 쉽게 피로해지는가?”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박과장 스스로 추리한 金氏의 느낌에 근거 하여 相對方을 評價하는 경우로서 金氏로부터 반발 내지 “저 사람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라는 不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과장이 “자네는 지금 내 딸을 듣기에 아주 지루한 것같은 인상을 주는 데 사실 그런가?”라고 자기의 知覺을 檢討했다면 金氏는 “아닙니다. 이 房이 왜 이렇게 편지요? 지금 내 몸이 좀 不便해서 그렇지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反應이 나올 수 있다. 만일 박과장이 知覺檢討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들 수 있었는가? 잘된 지각점토는 “나는 너의 느낌을 알고 싶다. 여차여차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나?”라는 말을 相對方에게 傳達하는 것이며, 相對方의 느낌이 좋다거나 싫다고 表示하는 것이 아니다. 相對方의 느낌을 評價하는 것이 아니라 尊重한다는 뜻이 되겠다. 느낌을 尊重받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가 人間으로서 매우 받음을 알게 되고, 相對方에게 好感을 갖고 솔직해지며 結果적으로 어떤 問題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努力하는 경향이 많다.

以上 두가지 方法은 다른 사람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는 技術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는 技術을 두가지 소개하면,

첫째 : 행동서술이다. 행동서술은 지금 나는 相對方의 어떤 行動에 反應하고 있다 함을 相對方에게 알리려는 目的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相對方의 行動을 내가 어떻게 觀察하겠나를 相對方이 充分히 명료하게 알게끔 서술해 주어야 한다. 即,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觀察할 수 있는 相對方의 行動이나 눈으로 直接볼 수 있는 事實에 근거를 두고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集團討論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본다면 : “金氏는 오늘 李氏에게 反對되는 말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內容적으로 근거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김씨는 이씨를 내려 깔으려고 하는구려.”라고 말을 해석는 안되겠다. 김씨가 오늘 話題에 흥미가 많아서 熱을 띠고 자기의 생각을 말해 놓고 보니까 이씨의 말에 반대되는 立場에 서게 된 것인지 이씨를 누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서술이 아니고 좋지 못한 動機를 推定하는 어투로 간주되기 쉽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김씨, 이씨가 하

러 할니까?”란 말보다 훨씬 잘된 서술이다.

意圖的이란 말은 김씨가 말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이씨의 말 도중에 끼어 들어가는 말이 되므로 처음 서술구는 모든 사람이 觀察할 수 있는 事實, 김씨가 말을 始作하기 때문에 이씨가 하던 말이 중단됐다는 것을 說明해 준다.

행동서술을 잘하기 위한 기술은 무엇이 실제로 생기고 있나 예민한 觀察을 하는데서 3차 정도된다. 이러한 訓練을 하고나면 과거에 내렸던 많은 結論들이 觀察할 수 있는 事實에 3차로 내려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고 不安定했던 本人의 느낌이 많이 作用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 人間으로 더 잘 理解하는데 주는 또 하나의 技術은 나의 느낌을 서술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經驗하고 있는 事實을 어떤 이름을 붙이거나 區別을 해서라도 明確히 表現해야 한다. 느낌을 表現하는 것은 다른 여러가지의 情緒反應으로 나타날 可能性이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을 붉힌다 하자. 얼굴을 붉히는 表現은 그 사람이 당황했거나, 즐거웠거나, 창피를 당했거나, 不快하거나, 또는 단순히 溫度가 높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原因이 나타내는 表現이다. 即, 本人이 왜 자기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說明을 하지 않는 한 왜 얼굴이 붉어졌는지 理由를 알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람들이 흔히 “너는 말이 많다.” 한 感情表現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간접적이며, 相對方이 공격적 表現으로서 받아 들이게 될 可能性이 많다. 사실 그말을 하는 장본인의 진실한 느낌은 “나도 할 말이 좀 있다.” “네말은 지루하다.” “네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나 자신 부끄럽다.” 등등 일 것이다. 역시 本人이 자기의 느낌을 서술하지 않는 한 相對方은 그 表現에 무엇인지 眞正한 뜻을 알기가 힘들다.

자신의 느낌을 서술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關係를 두텁게 하는 대화를 始作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이 對人關係에서 상대방을 신중히 받아 들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느낌을 正確하게 아는 것이 必要하다. 탄일에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다면, 그것은 두사람 사이의 關係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信號로써 두사람 다 意思疏通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檢討해 보아야 될 必要性을 暗示해 준다.

두사람이 이 事實을 自覺하고 現況에 대하여 討論해 본 결과, 本人이 잘못된 知覺을 근거로 그렇게 느꼈음을 自覺하고 느낌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다른 可能性은 뜻하지 않게 自己 行動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음을 自覺하고, 그 結果로 自身の 行動을 變化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點은 本人이 自己의 느낌을 서술하는 것이 상대방의 行動을 強制로 變化케 하여 本人이 現在와 같이 느끼지 않으려는 目的을 가지고 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상태를 알려주는 方法으로서 두 사람이 서로 理解하고 關係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必要한 한 가지의 情報로써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부끄럽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주 좋아진다.” 等等 이러한 例들은 자기의 느낌을 훌륭히 나타내는 表現들이라 하겠다.

對人關係에 問題를 가지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느낌을 서술하는 대신 이 느낌에 의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傾向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自己의 부정적인 느낌만 表現하고 긍정적인 느낌은 表現하지 않는 傾向도 있다. 앞서 말한 方法을 쓰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받을 것이며 後者의 경우에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진지한 反應을 얻지 못할 것이다. 卽, 부정적인 느낌, 서술은 過去에 긍정적인 表現을 한 경우에 純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暗示한다 하겠다.

5. 結 論

對人關係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理論的 모형을 提示함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對人關係를 效果的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理論과 병행한 實習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實習을 통하여 理論을 배운 학도들은 理論을 理解하고 整理하여 자기 스스로 더욱 진보시켜 나갈 可能性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實사회에서 理論을 知識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옮길 可能性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實習에 있어서도 대개 두가지 접근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 한가지는 理論과 實習을 병행하여 對人關係能力을 증대시키는 데에 관심두는 것으로 National Training Institution의 스타일이고 다른 한 종류는 實習에서의 經驗을 통하여 感動하고 스스로 成長하여 理論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만족한 對人關係를 유지하게 하는 훈련으로서 Eslane 스타일이 이에 속한다 하겠다. 目的과 進行方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對人關係를 위한 實習에 대한 명칭은 sensitivity training, group therapy, encounter group, growth group, training group, self-awareness group, marathons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어떤 스타일을 택 하던간에 그 結果는 目的에 따라 效果가 測定될 것이겠으나 社會事業學徒를 위한 것은 個人으로서의 成長과 實務者로서의 能力을 向上시키는 데 目的이 있다면 理論과 實習을 병행하는 laboratory의 스타일이 합당하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社會事業學科가 있는 10개 大學에서 두 학교에서만 對人關係에 대한 내용을 단독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⁶⁾ 社會事業의 學問的 性格이나 實務內容으로 보아서 對人關係論이 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할 必要性이 지대함을 강조하며 이 敎育을 위한 敎材開發, 實習室準備, 研究活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6) 南世綱, 전제서, pp. 15~18

參 考 文 獻

1. Allen Pincus, Anne Minahan, 文仁淑의 3명 共譯, “社會事業方法論.” 共學社, 1976
2. 南世鎬, “韓國社會事業教科課程 開發을 위한 研究,” 韓國社會福祉社, 韓國社會福祉研究所, 1978. 11
3. Terry O'banion, April O'connell, “The Shared Journey,” Prentice-Hall, New Jersey, 1970
4.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Bantam Books, New York, 1970
5. Carl R. Rogers, “The Process of the Basic Encounter Group”, Challenge of Humanistic Psychology, McGraw-Hill, New York, 1967
6. Joseph Luft, “Of Human Interaction National Press,” California, 1969
7. Richard J. Ofshe, edited, “Interpersonal Behavior in Small Groups,” Prentice-Hall, New Jersey, 1973
8. Robert Golembiewski, Arthur Blumberg, edited, “Sensitivity Training and The Laboratory Approach,” Peacock, Illinois, 1970
9. Everett L. Shostrom, “Man, The Manipulator”, Bantam Books, New York, 1968
10. William C. Shutz, “The Interpersonal Underworld,” Science and Behavior, California, 1968
11. Rollo May, “Man's Search for Himself”, Signe Book, New York, 1967
12. Thomas A. Harris, 李炯得 李星台譯, “人間關係의 改善과 治療,” 中央適性研究所, 1974